

지역 소식통



부안군 행안면, 농공·숙 6차 산업 활성화 생생현장회의

부안군 행안면은 20일 농공과 숙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생현장회의를 농작목반장 김근희씨 육묘장에서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 행안면 6차 산업 추진 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생생현장회의는 '행안면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근희 농공작목반장과 김광호 숙작목반장이 행안면 6차 산업의 비전과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안면 6차 산업 추진업체인 유한회사 떡두꺼비에서 떡을 전시하고 시식했으며 행안면에서 직접 생산된 콩과 숙을 이용한 두부도 선보였다.

김광호 숙작목반장은 "수도작에만 의존하던 과거를 타파하고 고소득 작물인 숙과 논콩 재배 확대 및 성공적인 6차 산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 신청

문화·여가생활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정읍시는 '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문화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이며, 카드는 스포츠용품,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서점, 사진관, 안경점 등 25개 업종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에서 만 65세인 여성농업인과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 기혼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5만㎡미만(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시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된 뒤 17일부터 생생카드를 추가 발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확보 사활

정산지구 새들마을·시청오거리 간판개선시범 등 8개 사업 34억원 확보

김제시는 시 재정 6천억 시대를 맞이하여 낮은 재정지급도와 열악한 재정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는 2018-2019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등을 통해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40개사업, 총사업비 4,197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예산 담당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과제와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

하여 사업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 요청으로 행정과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시정 주요현안 과제인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 촉사업', '김제공항부지활용을 통한 종자산업클러스터구축'과 더불어 시에서 구상중인 사업들을 구체화하여 김제시 대선공약으로 확정하여 금명간에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성과로 금년 1/4분기 현재 중앙공모사업에 '정산지구 새들마을사업(20억원), 시청오거리 간판개선시범사업(2억원), 나들가게 육상산도지역 지원사업(4억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6억원)' 등 8개사업에 34억원 확보하였으며 백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60억원) 등 2개 사업은 심사중에 있다.

이밖에 국정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분야에 '여성일자리 해피프리마켓 존 조성', '장애인 공동작업장 진입로 개선사업' 등 2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정점사항에 대한 논리보강과 향후 국가예산확보 대응방안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에 있으며, 4월중에 전 부서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정부예산 편성단계부터 반영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사업별 부처의견과 반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병조 교수, 정읍시민대상 특강

11월까지 마지막 수요일 무료 실시

배추머리 개그맨에서 명심보감을 전하는 전도사로 변신한 김병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행복'을 주제로 현대인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길을 밝혀줄 선조들의 빛나는 지혜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 교수는 1980년대, 국민 MC경 최고의 인기 개그맨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1998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명심보감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학자이자 명 강연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렵고 딱딱한 한자어 속에 감춰진 명심보감의 소중한 교훈을 김병조 교수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재미있게 풀어내, 시민들에게 즐거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행복 특별강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수요일에 무료로 실시된다. 시는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민행복 특별강좌를 운영해오고 있다.

4월에는 방송인 정덕희의 '프로는 아깝다', 5월에는 푸름이 아빠로 널리 알려진 작가 최희수의 '푸름이 아빠의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서면 해피투게더 365 인구 3200명 달성 추진위 발대식

부안군 인구 지키기 인구 늘리기 일환

부안군 하서면이 저 출산 및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하서면(면장 문숙자)은 인구 지키기와 인구 늘리기를 병행해 부패 만복을 실현하기 위해 '해피투게더 365 인구 3200명 달성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하서면 5개리 이장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서로 힘을 합쳐 하서면 인구 3200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 기관단체 전입 독려, 출생아 축하이벤트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활동을 통해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하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향선관(이장단협의회장) 추진위원장

은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하서에 정착한 사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우리 추진위원회의 몫"이라며 "인구 지키기와 인구 늘리기를 병행해 부패 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보건소, 비만교실 매주 화·목 운영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건강생활실현을 권장하기 위해 체지방을 33%이상 비만판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21일부터 주2회 화·목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비만교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2주간 운영하며, 사전·사후 기초검진 및 체지방 감량을 위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강화운동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교육기간 동안 운동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비만탈출과 함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운영 결과 참가자 중

체중 및 체지방률 감소, 골격근량 증가로 인해 운영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신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효과는 첫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인 감소, 둘째 식이조절과 함께 과체중 및 비만 감소, 셋째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감소, 넷째 각종 암 유병률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장암, 유방암의 예방에 효과적이고 골다공증, 근력,유연성을 증가시켜 근골격 건강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권고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보건소, 손 씻기 교육용 뷰박스 대여

정읍시보건소에서 연중 '손 씻기 교육용 뷰박스'를 대여하고 있다.

손 씻기 교육용으로써 쓰이는 뷰박스는 형광물질 로션을 손에 바르면 뷰박스의 검사 스크린에 넣으면 형광물질이 하얗게 보이는 기구다.

이번 대여사업은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개인위생 관리 능력을 높이고 단체생활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소는 "뷰박스는 형광로션을 이용해 평소 습관대로 손을 씻고 나서 세균이 얼마나 제거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대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내 병원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

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수칙으로, 손 씻기만으로 각종 감염병의 50%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중독과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손 씻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소 감염관리팀(☎063.539-6112)에 연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처벌 강화

김제시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에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과 연계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임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제시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 및 산불인접지역 소각행

위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제시에는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없이 불을 낸 용지면 A씨와 B씨, 백학동 C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